한국학연구 제72집 | 377~405쪽 | 2024.2.

중국문학 정전들과의 뒤늦은 조우*

- 1980년대 한국 번역장과 바진, 마오둔, 라오서 소설 -

엄진주**

〈차 례〉

1. 문제제기
2. 1984년 도쿄 국제PEN대회와 한·중 문인 교류
3. 중국 신문학 대표 작가군 수용의 두 번째 시기
4. 중국문학 번역장의 재편과 소통의 환류
5. 결론

[국문초록]

본 글은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의 특징과 재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아 작품 수용의 추진 배경과 양상을 문단, 출판, 번역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문학교류사의 공백으로 인식되는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한 것과, 중국문학 번역장 동태 변화 특징을 대중(對中)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에 주목한 점이다. 연구 결과 1978년에 새로운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한 중국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지적 수요가 경제계, 문단, 학계에 이어 출판 분야의 방향성 재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변화된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한·중 문인들은 1984년과 1988년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펜대회에서 교류했고 그 결과 바진, 마오둔, 라오서 등 작가의 새로운 작품 번역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냉전 금제의 임계점에 다다른 중국문학 번역장 재편을 통해 새롭게 소개된 작품들은 중국에 대한 국내 각계각층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효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고 이는 양국 문학 소통의 환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1980년대 번역장, 번역문학, 바진(巴金), 마오둔(茅盾), 라오서(老舍), 국제펜대회

---

* 이 논문은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제3단계 제2회 국제학술회의(2023.10.28.)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교수

1. 문제제기

바진(巴金), 마오둔(茅盾), 라오서(老舍)는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서, 국내외적으로 루쉰(魯迅), 궈모러(郭沫若), 장아이링(張愛玲) 등과 함께 가장 지명도가 높은 작가라는 점에서 인식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제 2018년에 『亞洲週刊』에서 실시한 〈20세기 100편의 최우수 소설〉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이들은 각각 3위, 6위, 8위에 랭크되어 있어[1] 중화권 내 이들 세 작가의 지명도와 문학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작가와 함께 대표작으로 조사된 작품 『家』, 『자야(子夜)』, 『낙타상자(駱駝祥子)』이다. 중화권 사람들의 인지체계 속에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20세기를 관통하여 21세기 독자들에게도 읽혀지는 세 작품은 정전(正典)이라 불릴만한 이 시대의 고전이다.

그렇다면 이 세 작가의 한국 내 수용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한국 지식계와 문단의 관심은 근대초기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해방 이전 시기의 경우 정래동, 이명선, 이달, 김광주를 통해 다각적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특히 바진의 문학적 가치와 성취는 '루쉰의 다음 자리에 두는' 평가로,[2] 라오서의 작품은 '백화 소설은 라오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문학사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3] 마오둔 역시 당대의 지식인들이 발빠르게 식민지 조선 문단에 소개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였다.[4] 하지만 해방 이전 시기 세 작가에 대한 연구는 소개 차원에서 종료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과 일제의 언론 탄압 심화로 인해 작품이 번역 및 출간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해방 직후 출판업의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중국현대소설 작품의 번역 기

1) ①魯迅, 〈吶喊〉 ②沈從文, 〈邊城〉 ③老舍, 〈駱駝祥子〉 ④張愛玲, 〈傳奇〉 ⑤錢鍾書, 〈圍城〉 ⑥茅盾, 〈子夜〉 ⑦白先勇, 〈臺北人〉 ⑧巴金, 〈家〉 ⑨蕭紅, 〈呼蘭河傳〉 ⑩劉鶚, 〈老殘遊記〉
출처: 『亞洲周刊』, 世紀最優秀的100部中文小說

2) 정내동, 「中國文壇의 新作家 巴金의 創作態度」, 『조선일보』, 1933년 2월 28일, 4면.

3) 이명선, 『인문평론』, 1940.11.

4) 엄진주, 「해방 10년, 바진(巴金)의 저작물번역연구」, 『中國學報』 97, 한국중국학회, 2021, 360쪽.

획도 이루어지게 된다. 바진, 라오서를 비롯하여 장광츠(蔣光慈), 궈모러, 루쉰, 예샤오쥔(葉紹鈞) 등 중국문학혁명을 이끈 대표작가 여섯 명의 작품이 해방 직후 이명선의 번역으로 출간된 선집 『中國現代短篇小說選集』(宣文社,1946)을 통해 소개되었다. 하지만 두 권으로 구성된 선집이[5] 출간될 정도로 해방 직후 적극적으로 소개된 루쉰의 경우와 대비하면 다작을 한 세 작가의 새로운 작품 발굴과 수용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 편이었다. 심지어 마오둔 소설의 경우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번역이 시도되었으니 작가의 입지에 비해 한국 내 수용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생각해 볼 점은, 장편소설은 물론이고 「阿Q正傳」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중편소설도 없는 루쉰과 대비적으로 이 세 작가는 이미 1930년대에 자신의 대표작인 장편소설이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6]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한 작가라는 점이다. 문학사적으로 걸출한 족적을 남긴 이들의 업적을 고려한다면 루쉰이라는 작가의 문학사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중국현대문학 번역장의 초기 구도는 지나치게 특정 작가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해방 후 5년의 시간 경과 뒤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약 30년의 기간 동안 중국현대문학의 새로운 작품은 사실상 발굴 및 유통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바진, 라오서, 마오둔을 포함한 새로운 작가와 작품 수용이 재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 부터이다.[7] 그런데 이것은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상호 교류가 재개되었다는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과 대비하면 약 10여 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데탕트 이후 도래한 신냉전 시기이자 한·중 양국이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냉전'과 '번역의 정치성'이라는 두

5) 김광주·이용규 역, 『魯迅短篇小說集. 第1輯-第2輯』, 서울출판사, 1946.

6) 老舍, 『駱駝祥子』, 上海人間書屋, 1939; 茅盾, 『子夜』, 上海開明書店, 1933; 巴金, 『家』, 開明書局, 1933.

7) 바진의 저작물은 한국전쟁 전후 두 편이 출판되었는데 각각 번역서 및 위작이다. 이에 순수한 바진의 창작 소설 번역 출간 실적은 없다.
엄진주, 앞의 논문, 359~385쪽.

개의 불가분의 요소는 해당 시기 번역장 내 수용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온 학계의 전통적 인식이자 전제이다. 문제는 상술하였듯 그와 같은 일반론 속에 존재하는 편차이다. 그렇다면 냉전기 중국현대문학의 수용에 정치 이외에 영향을 준 인자는 무엇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의 동태 변화와 그 근본적 동인을 대중(對中)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중국현대문학 주요 작가 수용의 추진 배경과 양상을 문단, 출판, 번역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84년 도쿄 국제펜클럽대회 기간 중의 한·중 교류 사항을 살피고 이과 연계하여 바진, 마오둔, 라오서 세 작가의 국내 번역출판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아울러 해당 시기 경제계 및 사회 각 부분의 대중 관계 자료 분석을 통해 1980년대에 중국문학 번역장의 특징과 재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1984년 도쿄 국제PEN대회와 한·중 문인 교류

중국이 1971년 UN에 가입하며 외교 무대에 등장한 이래 한국 사회는 중국의 대외 활동에 기민하게 주시하며 대응했는데, 가입 초기 한국의 대중(對中) 관심사는 주로 정치, 외교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연히 문화분야 교류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거나 혹은 개인 차원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소극적으로 전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중 간 문화교류, 특히 문학 및 문인 교류의 단절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선언 이후부터이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발표 직후부터 양국 간 교류의 관심 범위는 체육, 문화, 문학 등 훨씬 넓은 분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 일례로 1980년 5월 중국의 국제펜(International PEN Club) 정식 가입 소식이 즉각적으로 보도되면서 그로 인한 향후 중국의 국제문화사업에 대한 영향성 문제

가 한국 문화계의 고찰 대상이 된 것이다.[8] 이어서 1981년 12월에는 중국작가협회 주석인 바진이 중국 PEN의 회장으로 선출된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국 문단의 소식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 알려지게 된다.[9][10]

당시 중국은 경제 분야의 개방 뿐 아니라 '중화 문화'의 대외 진출에 큰 관심을 쏟았고 특히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인적, 물적 자원 지원 정책을 통해 문학번역의 다양한 경로가 모색되었다.[11] 중국 고전 및 현대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서구권을 대상으로 영어 및 불어 번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당시 정작 인접국인 한국과는 직접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가 여전히 차단된 '불통'의 상황이었다. 한국 문단과의 교류 역시 제3국 혹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국 간 문학 및 작가 교류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며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1984년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펜대회(이하 '도쿄대회')이다. 기실 한국의 국제펜대회 참여는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중 문단 간의 대화 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해외진출 정책 지원에 힘입어 죽의 장막을 거두고 국제교류의 장에 참여한 중국 문단의 변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전숙희(田淑禧)와 바진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양측은 1984년 도쿄대회 기간 중 두 차례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자국의 문화계 상황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주요 안건은 첫째, 상호 서신교환 및 자료 교환, 둘째, 198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펜대회에 중국 측 참여 확정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스포츠 교류처

8) 「中共, 펜클럽加入」, 『조선일보』, 1980년 5월 11일. 3쪽; 「中共, 國際펜 加入」, 『동아일보』, 1980년 6월 12일, 7면.

9) 「中共作家協 주석 巴金 펜회장 선출」, 『경향신문』, 1981년 12월 23일, 4면.

10) 바진은 문화대혁명 시기 부르조아 전위문학 작가라는 명목으로 탄압받다가 복권된 소식이 1977년에 보도될 만큼 당대 한국 지식계에서 주목하던 작가이다. 1980년대 들어 중국현대문학의 새로운 작품 번역이 재개된 시기 가장 먼저 소개된 것도 이와 같은 당대 지식계의 주목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巴金-葉聖陶 公式席上에」, 『조선일보』, 1977년 11월 15일, 2면.

11) 胡安江, 「改革開放四十年中國文學"走出去"的成就與反思」, 『中國翻譯』 2018年 第6期, 2018, 18쪽; 潘婧, 「改革開放以來中國文學海外譯介芻議」, 『跨語言文化研究』, 2019, 201쪽.

럼 문인들 간의 교류 활성화 제안에 관해 중국 측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했고 구체적으로 상호 편지 교환, 작품 및 자료 교환, 필요 문헌 교환 등 방안이 합의되었다. 한국 측은 중국 문인의 한국 초청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당시 미수교 상태였던 외교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실행은 어렵겠지만 늦어도 1987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펜대회는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호 간 문화 교류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12]

문인 간의 논의 이외에 대회 기간 중 '세계 정세속의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 자리에서는 한·중 학자들 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학술교류도 실시되었다. 이처럼 1984년 5월 도쿄대회 기간 중 추진된 일련의 교류 활동은 1980년대 들어 빈번해진 스포츠 교류 및 비정치적 관계 확대의 일환으로, 상호 문화교류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13] 특히 문인 및 학자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동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양국의 문학 교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

대회 이후의 한국 측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단장인 전숙희는 도쿄에서 만나 교류한 중국대표단장 바진을 서울 국제펜대회에 초청할 의지를 밝히며 의욕적으로 차기 대회를 준비해 나갔다. 대회 조직위를 구성하고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문학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대회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있었지만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14] 문학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문학 번역이 특히 강조된 이유에는 도쿄대회 당시 바진이 한국 측의 1987년 서울 펜대회(이하 '서울대회') 초청 제안에 참석을 약속했었고 이에 대한 화답의 차원으로 대회 개최 전까지 새로운 중국문학 작품의 번역서 출간 성

12) 「韓·中共 文化교류 협의」, 『동아일보』, 1984년 5월 15일, 4면; 「東京펜大會서 韓·中共문화 交流 합의」, 『경향신문』, 1984년 5월 15일, 1면.
13) 「韓國·中共 넓어지는 門」, 『동아일보』, 1984년 5월 16일, 4면.
14) 「田淑禧 펜클럽會長 春川서 번역문학 세미나」, 『경향신문』, 1984년 9월 25일, 2면.

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바진은 1988년 서울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1985년 시점까지만 해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조지프 브로드스키 등 미수교권 중요 인사들과 함께 초청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15] 이에 대회 주최측의 입장에서 서울대회 개최 이전까지 번역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우선적으로 바진 작품의 번역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5년 한 해에만 세 개의 출판사에서 바진의 대표작 『家』가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바진의 서울대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도쿄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응당한 성과물을 도출했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재개라는 교류사적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전숙희와 대표단이 1984년 도쿄대회에서 서울대회를 유치하면서 논의된 사안과 다양한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었는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1년 늦은 1988년에 개최된 제52차 서울대회에는 공산권을 포함한 42개국의 7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작가협회 부주석인 문학평론가 펑무(馮牧), 상하이(上海)펜회장 겸 소설가 커링(柯靈), 언론계 출신 소설가 샤오치엔(蕭乾), 시인 겸 중국펜클럽부회장 주즈치(朱子奇)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중국의 문학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측의 이해를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개막식에서 이현재 국무총리는 "서울 하계올림픽에 앞서 문인들이 마련한 또 하나의 우정과 화해의 문화올림픽"이라며 스포츠 분야에 이은 문학 교류상의 탈냉전적 의미를 부각했다.[16] 서울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공산권 문인들이 국제펜대회에 공식 방문하고 또한 한국 내 금기시된 공산권 문학이 적극적으로 소개되면서 '동서화해의 場'으로서 의미화되고 평가되었다는 점에서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회는 소련, 중국 등 공산권 작가의 참여로 인해 그간 공산권 작품과 문인에 대한 심리적인 불편함이 해소되고, 또한

15) 「87년 서울 국제펜大會에 솔제니친, 巴金 등 초청」, 『조선일보』, 1985년 11월 20일, 7면.
16) 「國際펜大會개막」, 『매일경제』, 1988년 8월 29일, 1면.

이데올로기 폐쇄성을 무너뜨리는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17] 주목할 만한 것은 1988년 서울대회 개최에 관한 평가는 주로 구속문인 문제와 관련된 국내적인 상황과, 사회주의 국가 및 작가들의 참여와 교류 재개에 관한 국외적인 의미의 두 층위에서 논의된다는 점이다.[18] 이는 다시 말해 냉전 종식에 관한 문인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시화되는데 1988년 서울대회의 개최가 그만큼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1988년 서울대회의 '탈냉전적' 의미 획득은 과거 대회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 가령 1970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펜대회의 경우 소위 '순수한 문학회'로서의 구실을 다한다는 명목하에[19] "동서문학의 해학"이라는 대회 주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기실 당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정치적 논의와 분쟁을 차단하고 그 대신 '적절하고 무난한' 주제로 임하고자 하는 의도가 십분 반영된 결과였다. 즉 냉전 상황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 차원에서 문학의 역할이 논의되지 못한 채 다만 고조된 긴장을 잠시나마 '해동시키는' 일종의 임기응변적 용도로서 다루어진 것이다.[20] 한국 펜본부 회장 백철은 그와 같은 대회 주제에 대해 "현대사회와 같이 인간의 표정이 얼어 있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해학이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그 얼어붙은 표정을 녹여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학을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는 보지 않읍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대회의 의제로서는 이것이 가장 시의에 맞고 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이 의제를 채택한 것입니다."[21]라며 낭만적으로 해설했으나 기실 그 본질에는 현실 회피적인 태도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22] 다만 그와 같은 주제의식을 냉소적으로만 보기 힘든 것은 당시 한국문학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아직 일본과 같은 국제적

17) 「민족문학이 우리 진실이며 주류 확인. 백낙청씨에게 듣는 민족문화제 국제펜대회 마무리」, 『한겨레』, 1988년 9월 15일, 7면.
18) 이남, 「서울국제펜대회의 명암」, 『창작과비평』 62, 창작과비평사, 1988, 311~320쪽.
19) 백철, 「제37차 세계작가회의에 한국 PEN은 어떻게 임할까」, 『시사』 9(5), 내외문제연구소, 1970, 19쪽.
20) 왕캉닝, 『린위탕과 한국: 냉전기 중국 문화 지식의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 소명출판, 2022, 185쪽, 210~211쪽.
21) 백철, 「간행사」, 『회의록』, 국제P.E.N.한국본부, 1970, x쪽, 왕캉닝 앞의 글 210쪽에서 재인용.
22) 왕캉닝, 앞의 책 210~211쪽.

성과를 획득하지 못했고 서구에 비해 문학 권력의 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의 헤게모니와 결부된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대회 주최측으로서 1970년의 한국문단이 반쪽짜리 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대회의 개최 배경과 운영상에 여전히 냉전 논리가 작용하여 실질적인 문학 교류의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했던 1970년 대회와 달리 1988년 서울대회는 한국에서 공산권 문학작품 출판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1988년을 전후한 시기 새로운 중국문학 작품의 발굴과 출간이 이어졌으며, 특히 중국의 현재를 담고 있는 '당대(當代)문학'[23]의 이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은[24]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성된 기존의 중국문학 번역장의 구조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획기적으로 변모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1988년 서울대회가 한국 작가와 문단에 새로운 담론과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25] 재고의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미수교국과의 문학 교류 재개가 한국 사회와 문학 창작 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국제펜클럽대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 문단의 대외 교류는 수차례 변곡점을 만들며 성장했다. 한국 펜클럽 창립 초기인 1950년대는 한국문학과 세계의 직접 대면과 일제강점기간 중 세계문학과의 조우에 형성되었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26] 1970년대는 아시아의 개최국으로서 서양 중심의 세계문학 패권 구도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동양문학의 굴기'를 내보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27] 그 결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동

23)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시점인 1949년을 분기로 하여 이후 시기에 나온 작품이 당대문학으로 구분된다. 당대문학은 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작품 주제나 출판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요인과의 관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대문학의 국내 이입에 대해 탈정치적 관점으로 해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4) 엄진주, 「한국현대문학의 중국현대소설 수용사 연구: 해방이후부터 한중 수교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2~135쪽, 165~171쪽 출간 번역서 목록 참조.

25) 이상경,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와 번역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5, 외국문학연구소, 2016, 84쪽.

26) 김미란, 「문화 냉전기 한국 펜과 국제 문화 교류」,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337~338쪽.

27) 왕캉닝, 앞의 책 188쪽.

양 문학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형성되었을지언정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문학 텍스트가 세계 문학장에 대거 진출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과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학은 냉전 체제의 종식 분위기를 수용하여 동서 문화교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문학 교류의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된 점은 중요한 성과이다. 한국 펜클럽 설립 이후 30년이 경과한 1984년 시점의 주안점은 이제 미소 냉전 체제의 한계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좌우 진영이 냉전의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라는 매개항을 통해 그간 이루어진 반쪽짜리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었다.

이어지는 1988년 서울대회는 '동서 화해의 장', '문화 올림픽' 등의 수식어로 표현될 정도로 중국 및 사회주의 국가 간 문학 교류의 장벽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성과를 동반했다. 이와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도쿄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번역서 출간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1984년 도쿄대회는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었던 한·중 문학 번역 교류가 재개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계기이자 기점이다. 1992년 수교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활발하게 새로운 중국 문학작품 소개가 추진되며 세계문학 번역장의 구도 재편을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서 1984년 펜클럽 개최 성과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3. 중국 신문학 대표 작가군 수용의 두 번째 시기

1) 바진과『家』

바진은 1930년대에 정내동, 이달 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바 있고 해방 후에는 단편소설 한 편이 선집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작품 번

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진은 1980년대 지식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중국 작가 중 한 명이다. 1980년대 들어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문학 생애와 작품 출간 소식이 전해진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와의 정치 이념 대립이 진행 중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1984년 5월 도쿄대회 참여를 계기로 바진은 한국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작가로 급부상한다. 폐회 직후인 6월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바진을 "세계 7대 작가의 한 사람"으로 꼽으며 그의 전반적인 문학 생애와 최근의 철학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도 했다.[28] 당시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냉전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느껴질 만큼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원불멸한 책무라고 말하고 전 세계 작가들이 단결하고 수백만의 펜이 합쳐지면 더 좋은 세계,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바진의 주장은 도쿄대회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의 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도에서 인용된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상호교류와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편타당한 인류애를 지향하며 탈정치성을 견지하는 그의 문학관은 당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교류의 핵심 인물로서의 역할론과 함께 한국 지식장에서 논의되었다.

『조선일보』에 글을 게재하며 한국 언론사상 최장기 칼럼 기록을 세운바 있는 언론인 이규태도 바진의 문학적 생애를 조망한 바 있다. 이규태는 바진이 1984년 도쿄대회 참여 당시의 했던 말을 인용하며 "바진이 '인간의 강인함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더니 올해 벽두에는 창작 자유 확대를 새 규약으로 들고 나온 중공작가협회의 새 회장으로 추대받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문학을 죄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 보이는 파금 복권이다."라고 소개했다.[29] 바진의 탈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인류 및 창작의 자유 중시 사상에 주목하며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지점은 이 시기 언론에서 바진을 다루는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그의

28) 「中共文壇의 별 老 작가 巴金」, 『동아일보』, 1984년 6월 28일, 4면.
29) 「이규태 코너 巴金」, 『조선일보』, 1985년 1월 11일, 5면.

'탈정치적, 탈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 기조는 바진의 신작을 소개하는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 항상 인류애에 기조를 둔 작품을 써, 정치와 문학이 밀착된 중공의 현대문학사에서는 드물게 보는 '정치색 없는 작가'인 巴金은 그 바람에 文革기간 중 黑老K로 지목되어 四人幇의 혹독한 박해를 받기도 했다.[30]

> ㉡ '정치색 없는 작가'인 巴金은 文革기간 중 혹독한 박해를 받기도 했으나 文革이 끝난 후 복권됐다. (중략) 79년 上海에서 『家』를 재판, 순식간에 50만부가 팔릴 정도로 중국인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巴金은 문학이 정치나 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는 항상 인류애에 바탕으로 둔 작품을 써온 휴머니스트이다.[31]

인류애를 중시하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바진의 문학 생애는 해방 직후 소개된 작품을 통해서 이미 한차례 조명된 바 있으며[32] 여전히 냉전 체제가 가동 중인 1985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중 문학 교류의 중심인물로 새롭게 부각된 바진의 정치적 중립성이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도 그럴 것이 1985년에 번역된 바진의 장편소설 『家』는 정치적인 논쟁거리와는 거리가 먼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1933년에 단행본으로 초판 발행된 『家』는 바진의 작품 중 예술적 성취도가 높고 영향력도 가장 큰 작품으로 평가받는 소설이다. 1919년 5·4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붕괴하는 과정을 소재로 한다.[33]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상, 근대화 과정의 다양한 풍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만식, 박태원, 염상섭, 박경리[34] 등 작가의 작품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중국문학사적으로

30) 「中共소설 첫 번역출판」, 『조선일보』, 1985년 10월 1일, 7면.
31) 「中共작가 巴金의 家 번역출판」, 『동아일보』, 1985년 10월 1일, 6면.
32) 엄진주, 앞의 논문, 369~375쪽.
33)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29쪽.

중요한 텍스트이다. 바진의 작품 중에서도 단연 대표작으로 인식되는 작품이자 국내외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작품으로, 그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당시 기반이 되었던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家』이다. 이 점은 언론과 출판 홍보에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바진 혹은 그의 작품'[35]이라고 언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내 수용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시빗거리에서 자유로운 텍스트이다. 1985년에 세 개의 출판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출간되면서[36] 바야흐로 중국 신문학(新文學) 대표 작가군의 두 번째 수용기의 포문을 연 작품이 바로 바진의 『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에 번역 작업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 실마리는 전숙희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 오늘의 중국 문단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파금(巴金)의 대표작 『家』가 이제야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는 인류애를 작품 기조로, 반항적 영웅주의자가 사랑과 미움, 사상과 행동의 갈등 속에서 끝내는 니힐리즘에 빠져들어가는 테마를 즐겨 다뤄온, 중국현대 문학사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색이 없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중략) 그의 작품들은 이미 1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서방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고, 『家』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노신의 「광인일기」나 「아큐정전」 등은 이미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은 『家』의 국내 출판은 기이한 느낌마저 준다. (중략) 필자는 작년 5월 동경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펜클럽대회에 우리 대표단과 함께 참석, 중공 대표단을 이끌고 온 파금을 만났다. 이 대회에서 '핵상황하의 문학'이란 주제 발표까지 한 그는 우리 대표단과 자리를 같이하고 동행한 딸의 영어 통역으로 잠시 교환했다. (중략) 필자가 87년 봄 서울에서 열릴 펜대회

34) 「中共작품 2편 7월 연극 무대 장식」, 『매일경제』, 1988년 2월 15일, 9쪽.

35) "노벨상후보 파금의 장편 「家」 대가족제도의 붕괴과정 그려"; "노벨문학상 물망"; "현재 중공작가협회장인 파금은 금년도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자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79년부터 줄곧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어 온 파금은"; "노벨상 후보로 여러차례 오른 저명작가 파금의 『家』와" 「中共소설 첫 번역출판」, 『조선일보』, 1985년 10월 1일, 7면; 「中共작가 巴金의 「家」 번역출판」, 『동아일보』, 1985년 10월 1일, 6면; 「中共작가 巴金의 「家」 번역출간」, 『경향신문』, 1985년 10월 2일, 7면; 「文化 「共産圈교류시대」」, 『동아일보』, 1988년 6월 22일, 3면.

36) 역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①박난영 역, 이삭문화사 ②강계철 역, 世界 ③최보섭 역, 청람문화사

> 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참석하겠노라며 "작가들은 지적 세계를 넓히기 위해 상호교류가 필요하고 외국문학을 더 많이 출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서울펜대회에서 파금에게 한글로 된 그의 대표작을 전해줄 것을 생각하니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쪼록 『家』의 출간이 두 나라 간의 문학을 통한 문화교류의 첫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37]

위 글을 통해 1985년 바진의 『家』 출간이 왜 그토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정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1988년 서울대회 개최 전까지 새로운 중국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한국 지식계의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결국 서로 다른 세 개 판본의 『家』 출간 배경은 1984년 도쿄 국제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4년 도쿄에서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중 문학교류가 출판업계와 문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家』의 출간이다.

2) 마오둔과 『자야』

중국 최고의 장편소설 작가로 평가받는 마오둔은 해방 이전 김광주, 이명선을 통해 소개된 바 있으나 작품 번역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서두에서 밝혔듯 세 명의 작가 중 한국어 번역 시기가 가장 늦은 작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 소설 두 편과 단편소설 다섯 편이 소개되면서[38]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을 풍성하게 구성하는데 일조했다.

193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마오둔의 대표작 『자야(子夜)』는 1930년대 국제도시 상하이를 구성하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각 계층의 인

37) 전숙희, 「〈家〉의 출판에 붙여」, 『家』, 청람, 1985, ⅰ쪽.
38) 『子夜』 이외에 번역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강영 역, 『안개 계절의 悲歌』, 이성과현실사, 1986. ②이병한 역, 「린씨네 가게」, 『세계명단편 100선⑬ 중국어권(Ⅱ) 풍경 外』, 삼성미술문화재단, 1987. ③함종학·이창인 역, 「임씨네 상점」, 「봄누에」, 「가을걷이」, 「마지막 겨울」, 「자욱한 구름」, 『茅盾小說集 누에도 뽕잎을 먹지 않는다』, 문덕사, 1989.

물 묘사와 근대 중국의 사회문제를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다. "성공적인 최초의 사실주의 장편소설" 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마오둔 소설 중 가장 큰 성취를 거둔 작품으로 평가받는[39] 이 작품은 1933년 출간 후 3개월 만에 4번을 재판하고 2만 3천여 부를 찍을 정도로[40] 작가의 입지 제고 및 문학성 성취에 기여했다. 국내에서는 『새벽이 오는 깊은 밤』이라는 제명과 함께 1980년대에 두 차례 번역되었으며 모두 김하림의 역본을 수록한 것이다.[41]

1980년대 들어 새로운 작품 발굴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면서 한국의 중국현대문학 번역장 구조는 기존의 루쉰 작품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선집 형태에서 벗어나 1세대 주요 작가군 발굴과 작품 소개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재편되어 갔다. 가령 소설 선집 『누에도 뽕잎을 먹지 않는다』에서는 "루쉰과 더불어 가장 진보적 문화의 선구자로 지칭되는 모순의 대표소설을 소개"하며 새로운 작품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중국 현대소설의 개척자인 노신(魯迅)은 광인의 행위와 독백을 통해 또는 아큐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중국의 과거와 현실을 거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그보다 15세 밑인 모순(茅盾)의 경우는 통보 영감과 같은 소작인, 임씨처럼 가난한 가게주인을 등장시켜 한 집안의 몰락과정을 통해 1930년대라는 현실을 실감나게 대변하고 있어 미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순이 노신처럼 아큐의 큰 충격을 일시에 던지지는 못했지만 소설가로서의 많은 작품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42]

이처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수적으로 연구자 집단이 많아지면서 폭넓은 독자 수요에 만족할 만한 새로운 작품 소개

39) 홍석표, 앞의 책, 219~221쪽.
40) 오복휘 저, 김현철 등 역, 『중국현대문학발전사』, 차이나하우스, 2015, 296쪽.
41) 출판사와 출판연도는 다음과 같다. ①『子夜』, 한울, 1986. ②『새벽이 오는 깊은 밤』, 중앙일보사, 1989.
42) 전인초, 「모순의 생애와 소설」, 『누에도 뽕잎을 먹지 않는다』, 문덕사, 1989, 231쪽.

작업이 다각도로 전개될 수 있었다. 마오둔의 작품은 이와 같은 '중국작품 연구 붐' 속에서 늦게나마 문학적 가치를 조명 받고 한국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마오둔 작품을 수록한 책의 간행사를 검토하면 당시 여전히 작품 선정 및 출판에 애로 사항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작품선정 과정에서 대만 현대 단편, 중공 현대단편, 이른바 문혁기를 배경으로 한 신사실주의 작품 등도 거론이 되었으나 역시 이데올로기의 상충과 시기의 성숙되지 못함을 감안하여 일갈 유보하였다."[43] 등을 통해 1980년대 중후반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중국현대문학 수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품 선정 과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44] 하지만 1980년대 이전과 차이가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계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출판 자본 증가와 시장 규모 확대도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의 근대초기 작품 뿐만 아니라 당대문학 번역 출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었다.[45] 즉 근현대 중국 사회의 면모를 관찰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 발굴의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마오둔을 포함한 중국현대문학 1세대 주요 작가군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마오둔은 1949년에 창립한 중국작가협회의 초대이사회 주석으로서 1979년까지 주석직을 연임했고 또한 중국 정부의 문화부장으로서 중국문예계를 지도하는 막강한 권위를 가진 작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마오둔의 입지를 반영하여 '모순문학상'이 제정되었고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고 높은 영예를 지닌 문학상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모순문학상의 수상 정보를 책

43) 李炳漢, 「작품을 선정하고」, 『세계명단편 100선⑬ 중국어권Ⅱ 풍경外』, 삼성미술문화재단, 1987, 5쪽.

44) 마찬가지로 중국 원작의 연극공연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견된다. "공산권 작가 작품이라도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순수예술 작품은 전면개방할 방침이다. 연극에만 한정된 선별기준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모든 예술분야에 적용될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글을 통해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논리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공산권 연극공연계획 "성급했나"」, 『조선일보』, 1988년 3월 13일, 9면.

45) 엄진주, 앞의 학위논문, 138쪽.

홍보에 십분 활용했는데 대표적으로 모순문학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의 책 표지에 수상 정보 문구를 담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구 포인트로 활용되었다.[46]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출판시장에서 작가 마오둔의 지명도가 책의 판매에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루쉰의 뒤를 잇는 새로운 중국 작가들의 국내 '상륙'이 새로운 중국작품 번역 재개 이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척되었음을 추정하는 이유이다.

3) 라오서와 『낙타상자』

1935년에 발표된 『낙타상자』는 중국문학사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자 라오서의 대표작이다. 군벌이 통치하는 북경을 배경으로 하층민 인력거꾼 주인공이 겪는 역경과 당시의 복합한 사회 모순과 시대상을 리얼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도시 빈민의 비참한 운명 묘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고발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다.[47] 미국 등 해외에서 다국어로 번역되어 큰 호응을 받은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로 소개된 이 시대의 정전이다. 앞서 소개한 작가의 대표작과 비교하면 국내 독서가들의 인지 체계 속에 단연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가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오서 역시 바진과 함께 해방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소개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한국어 번역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행된다. 1981년에 라오서의 대표작 『낙타상자』가 번역되면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단절상태에 있었던 새로운 중국문학 작품 발굴의 시작을 알렸다. 단편소설 「초승달(月牙兒)」[48]을 제외하면 1980년대 라오서 작품 번역은 『낙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김하중의 번역을 시작으로 총 네 개의 역본

46) 엄진주, 앞의 학위논문, 177~179쪽.
47) 홍석표, 앞의 책, 231~232쪽.
48) 허세욱 역, 『세계명단편100선 12 중국어권1 초승달外』, 三星美術文化財團, 1987.

이 출간되며[49] 명실상부한 라오서의 대표작품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여러 판본 중 1986년에 최영애가 번역 출간한 판본은 독특한 구성이 눈에 띈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된 책은 역자의 배우자인 김용옥이 원고지 2,000매가 넘는 분량으로 쓴 해설과 최영애가 번역한 본문이 각각 1권씩 총 2부로 구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50] 김용옥의 해설서는 총 239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은 물론 전반적인 중국 문화와 문학, 철학, 한국문학과의 비교 읽기 제안,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해설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판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500매가 넘는 작가 연보 자료 역시 기존 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성이다.

중국 現代文學 국내상륙

정권 수립이후 중국 남부 오지의 한마을을 무대로정치적폭동앞에 부유하는 인간군상을 묘사해 茅盾文學賞 제1회수상을 한 古華의「美蓉鎭」등에서 중국 현대文學의 진수를 맛볼수 있다。

최근 中國現代文學의 출판붐은 일고 있으나 아직 중국文學의 총체적 이해에는 미흡하다。

文學界에도 中國붐이 일고있다。통상증진등中國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9년 공산정권수립과함께 단절되었던 中國現代文學이 소개되고 있다。中國고전文學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한번쯤은 三國志, 수호지는 읽었다。

그리고 만리장성여행기, 혁명회고담, 평전등도 간혹 접했다。

茅盾 老舍 巴金 古華

[그림 1] 사진 왼쪽부터 마오둔, 라오서, 바진. 『매일경제』, 1989년 2월 8일, 12쪽

마오둔, 라오서, 바진은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창작성과가 뛰어난 시기로 평가받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루쉰과 함께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작가들의 '정전'은 약 반세기의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한국에 도착하여 1980년대에 비로소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의 긴 우호 교류의 역사적 측면에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들 작품의 번역을 시작으로 중국 신문학 대표 작가군 수용의 두 번째

49) 출판사와 출판연도는 다음과 같다. ①김하중 역, 금성출판사, 1981. ②최영애 역, 통나무, 1986. ③김하중 역, 금성출판사, 1987.(김하중의 1981년 번역본이 다소의 수정을 거친 후 재판됨) ④유성준 역, 중앙일보사, 1989.

50) 라오서 지음, 최영애 옮김, 김용옥 풀음, 『루어투어 시앙쯔.윗대목, 아랫대목』, 통나무, 1986.

시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또한 주요 작가가 거의 빠짐없이 소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의 구조 재편은 중요한 교류사적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판계에서 의례히 루쉰과 린위탕(林語堂) 등이 배치되던 위치에 전자들을 대체하여 세 작가가 새롭게 안착했다는 점은 단조로웠던 중국문학 연구 및 독서 행위가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중국현대문학의 전 시기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기획으로 중앙일보사가 출간한 『중국현대문학전집』(1989)에는 위 세 작가의 장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엔솔로지가 중국문학 전문 연구자들의 선별과 번역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는 점에서 이들 세 작가의 문학사적 중량감이 확인된다. 이미 반세기 전에 소개된 바 있으나 정식으로 번역되지 못한 이들의 작품이 1980년대 중국문학 출판 재개 이후 가장 앞선 시기에 소개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한국 지식계의 관심사 및 시대 변화에 대한 당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해방 이전 창작되어 중국 공산당과 무관한 작품은 여전히 잔존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비교적 수용하기 용이한 텍스트라는 점도 우선적으로 선별된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명실상부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번역장에 호출되어 다채로운 중국 열풍을 선도했다. 이후 작품 소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신문학 대표 작가군 수용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다.

4. 중국문학 번역장의 재편과 소통의 환류

탈쟁전 직전 다시 경직된 '신냉전'의 상황 중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갈수록 증대되었다. 이는 각 분야의 상호 교류와 신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학 출판 재개 및 지식장 내 새로운 중국 담론 형성에도 일조했다. 이와 같은 당대의 관심사는 소위 '중국 열풍'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시적이지도 혹은 일부 영역에만 국한된 것

도 아니었다. 1980년대 형성되었던 중국 관련 열풍 현상은 크게 경제계, 학계, 문학 및 출판계의 세 가지 분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고 당시 각 분야의 대중 지식 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문학의 역할론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번역장 재편과의 관련성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제 분야의 중국 열풍은 대외개방 정책 시행을 계기로 형성된 '중국 특수'를 잡기위한 기업들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자본투자의 첫 단계가 대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듯이 1970년대 이미 '중동 건설 붐'을 경험한 한국 자본은 '자본주의 도시 건설'이라는 과제를 품고 있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수교 이전부터 일찌감치 주목하고 있었다. 그 일례로 대외개방 정도가 최고로 발달한 광둥성은 중국 진출에 쏠리는 한국기업과 자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으로 인해 '동양판 서구개척열풍'이 형성되기도 했다.[51] 이와 같은 '제2의 중동 붐' 현상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된다. 중국을 염두한 서해안개발프로젝트 및 한국 대기업의 중국 공장 건설이 추진되며 중국 열풍을 이끌었다.[52] 1980년대 중후반 대중 투자의 구체적인 윤곽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글에서는[53] 이와 같은 열풍을 '말로만 외치던 중국열풍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며 아직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쏠리는 기업들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수교 전에 미리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당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알 수 있다.

중국 특수는 증권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8년경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중국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 및 무역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중국 붐이 형성되었다. 주지하듯이 증권가는 모든 경제 흐름과 전망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곳임을 생각할 때 중국과의 교역 환경 개선 여부가 한국 경제계

51) 「중공 자본주의도시 건설」, 『조선일보』, 1983년 8월 17일, 4면.
52) 「한국기업 중공 열풍」, 『매일경제』, 1988년 6월 24일, 4면.
53) 「126개 업체 중국 진출 희망」, 『매일경제』, 1988년 11월 24일, 2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54]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업의 중국 열풍도 눈여겨 볼만하다. 중국특수를 향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 모습은 이 시기의 진풍경이다. '단체회원 모집', '관광비자 여행 가능' 등의 문구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기업의 사업전략 차원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당시의 변화상을 설명한다.[55]

이처럼 1980년대 경제계의 각 영역에서 형성된 중국 열풍은 학계와 문화계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의 UN가입 직후인 1973년 학계는 이미 중국의 외교정책, 중국과 아시아의 관계, 통상전망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주제로 미래의 방향성 전망을 예측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대외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를 조망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중국의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학계의 진지한 고찰은 꽤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56]

중국 관련 학계의 관심은 개혁개방정책 선포 이후에 학문 전 분야에 걸쳐 한층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향후 한반도의 정치 · 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종전의 대만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연구의 중심이 변화하는 등 당시 학계의 관심사 역시 큰 폭으로 변화했다. 점차 증가하는 대중 관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학회의 창설 및 활동사항 점검이 중요하게 논의된 것도 이 시기 학계의 특징이다.[57] 이와 같은 중국 관련 연구 활성화와 중국 관련 학과 증가는 연구 성과물의 출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문학 및 출판계의 중국 열풍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판금 해제 및 사회주의 계열의 이론서 출판이 허용되면서 학술적 용도의 이론서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도 수용할 수 있게 된 1980년대 출판 환경 변화는 일반 독자의 지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58]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수요는 불법간행물의 범람을 야기하기도

54) 「증시-중공 열풍」, 『매일경제』, 1988년 1월 13일, 5면.
55) 「국내 관광업계 '중국 열풍'」, 『한겨레』, 1988년 10월 12일, 11면.
56) 「중공 열풍…현황과 향방」, 『조선일보』, 1973년 3월 24일, 3면.
57) 「중국을 알자…대학가에 연구붐」, 『경향신문』, 1985년 3월 6일, 6면.

했으며 이를 통해 역으로 당시 폭발적으로 급증했던 중국관련 출판물의 수요와 공급 구조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59] 또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독자도 다양해져”, “금서 영역 완화된 후 종류도 급증”, “대형서점들 별도 코너까지 설치” 등 독서 열풍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글을 통해서도 당시 관련 지적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60] “중국붐은 중공의 대외개방정책과 주변정세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공의 경제개방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같은 변화가 중국관계서적 출판 붐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처럼 경제 영역에 형성된 중국 붐은 출판업의 공급 확대 효과를 견인하며 그 파급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이와 같은 중국관계 출판물의 성장세 속에 자연히 문학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근현대 작품 및 상흔문학을 포함한 당대 소설도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래의 일본 대중소설과 구미 소설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인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중국문학의 비중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진행된 논의 역시 주목할 만하다.[61] 이와 같은 인식은 기존에 서구권 및 일본 문학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세계문학 번역장의 구조가 중국을 중심으로 그 구성 비율이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방된 중국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관심은 지식계, 문단, 출판계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중국 열풍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시기 수용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마오둔, 라오서, 바진 등 작가가 소개되고 더 나아가 한층 체계화된 번역서 출간이 기획되며 ‘중국문학 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에서 도출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62]

---

58) 「중공관계 “금서”해제」, 『경향신문』, 1984년 12월 5일, 11면; 「중공 사회주의 이론서 출판허용」, 『조선일보』, 1984년 12월 6일, 7면.
59) 「지하 간행물 시대」, 『조선일보』, 1985년 3월 19일, 7면.
60) 「출판가에 중공 열풍」, 『조선일보』, 1985년 2월 20일, 7면.
61) 「중공문학작품 출판활기」, 『동아일보』, 1985년 10월 15일, 12면.
62) 「중국 현대문학 국내상륙」, 『매일경제』, 1989년 2월 8일, 12면.

물론 중국관계 도서 출판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반공의 기치아래 장기간 유지되었던 사상 통제의 유효성은 1980년대 접어들어 상당 부분 소멸되면서 해금 조치가 실시되었고[63]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중국 관계 출판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 해금정책이 번복되며 이념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가 이루어졌고 이때 중국관계 출판물이 상당수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호한 기준과 적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번복되었던 판금과 해금 조치 속에서[64] 『낙타상자』, 『자야』, 『家』는 번역 재개 후 가장 앞선 시기 번역된 중국 작품 및 일련의 중국 관계 텍스트와 함께 시판금지 처분을 받았고 1987년 출판자유화 조치까지 공식적인 경로로 유통되지 못했던 것이다.[65] 냉전 종식을 앞둔 시점의 출판계의 모습은 복잡한 당대 정치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갔다. 다만 그와 같은 굴곡을 겪으면서도 중국 관계 지식 및 출판물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문학 작품 번역출판시장의 초기 발전을 견인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 활성화의 배경과 원인을 시간 역순으로 생각하면, ①중국현대문학의 국내 상륙 → ②1988년 서울 국제펜대회 → ③1985년 기점 번역 활성화 → ④1984년 도쿄 국제펜대회 → ⑤1980년 이후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관심 및 관련 보도 급증 → ⑥1978년 중국 개혁개방정책 발표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재계, 언론 및 지식계, 학계의 중국 연구 및 사업 진출 활동이 선행되어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다양한 중국현대문학 번역서 기획과 출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만큼 출판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은 이미 그보다 앞선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전후 시점, 즉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시점에서 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시장 논리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각 경제 주체들의 동태를 추적하면 출판업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

63)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155~156쪽.
64) 이봉범, 「반공주의과 검열 그리고 문화」,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상허학회편), 깊은샘, 2005, 84~85쪽.
65) 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43~75쪽.

기 시작한 중국문학 번역장 구도 재편의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대중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직전 시기까지 중국문학 작품 선정과 번역출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는 항목이 '정치'였다면 이에 더해 '경제'적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국내 상황과 함께 중국 쪽의 상황도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70년대 말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 변화의 주요 동인은 경제와 대만이었다. 1978년 이후 경제교류의 대상으로서 신흥공업국인 인접국 한국에 주목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개방은 1979년부터 제3국을 통한 한중 양국 간 간접교역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역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추진되었다. 1984년 도쿄 펜대회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의 행보 역시 본질적으로는 경제 개방과 협력 추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1983년 중국민항기 납치사건, 1985년 중국 어뢰정 사건 등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직접 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1992년 정치적 수교에 도달하기 위한 양국 대화는 기실 경제적 수교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수교의 단계를 거치며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만은 분명하다.[66] 1980년대 중국문학 번역 재개 및 한국 지식계의 대중 관심 증대의 발생론 혹은 근본적인 동인을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두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과 중국간의 문학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말 중국의 대표급 문인 7명이 국제펜대회 참가차 중국 문인으로는 처음 한국을 공식방문한데 이어 최근들어 한국 문인들이 잇따라 중국 방문길에 오르고 있다. 또한 두 나라에서는 쌍방의 작품을 번역·소개하는 작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략) 경제인들의 상호 방문은 꽤 오랜 일이지만 문화계 종사자들의 중국행이 본격화된 것은 학술교류 부분서부터 단계적으로 중국방문을 허용한다고 지난 10일 교통부가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중략) 이 같은 한-중간의 교류는 △정부의 전략적 뒷받침에 힘입어 경제교

66) 이동률, 「중국, 대전환의 20년(1972~1992)」, 『한미일중 100년 Ⅱ 냉전 해체와 중국의 부상(1970~2023)』(최종현학술원편), 일조각, 2023, 79~82쪽.

> 류의 다음단계로 정치교류의 길을 튼다는 효과 말도고 △분단 40년에 우리 대중의 내면에 일종의 편집증처럼 들씌워진 냉전의식을 허물고 △중국대륙에 축적된 문화유산과 혁명 뒤의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한국문화의 지평을 넓힌다는 데 뜻이 있다.[67]

한국 문단과 번역출판계의 대중 교류 재개는 그 이전 단계인 경제와 학술 부문 교류 이행 후 순차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점은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냉전기를 거치면서 중단되다시피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 발굴 및 번역 교류의 움직임의 모멘텀은 1992년 한·중 수교 14여 년 전인 1978년부터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전근대 시기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누려왔던 독보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근대 이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내어준 중국이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을 앞세우며 다시 도약하고자 발돋움했던 1978년 시점, 동아시아의 경제 중심축의 이동과 재편 조짐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일은 국내 출판자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85년 전후로 급진전한 중국문학 번역장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는 전쟁,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 등 정치적 원인으로 비롯된 30여 년의 공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양국 문학 교류가 원래의 모습으로 '환류'하는 시기였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번역장 역시 중국문학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재편되어 나갔다. 그 결과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세 명의 대표작이 뒤늦게나마 소개되어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냉전 막바지인 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준비하는 한국의 외교 언어는 기존의 '정치'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적대감 대신 충족되지 못한 지

67) 「문단 대륙향한 길닦기 활발」, 『한겨레』, 1988년 11월 15일, 7쪽.

적 호기심이 넘쳤다. 경제개방 정책을 천명하고 거대한 자본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교류 전략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셈법에 주목하여 빠르게 전환되어 갔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학교류사의 공백으로 인식되는 한·중수교 이전 국내 중국문학 번역장의 동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3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상호 문학 교류가 국제PEN대회라는 플랫폼을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지적 수요는 경제계, 문단, 학계에 이어 출판 분야의 방향성 재설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변화를 통해 1985년 전후 시점부터 그간 위축되어 있던 중국문학 번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그 덕분에 중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라오서, 바진, 마오둔의 작품이 늦게나마 소개될 수 있었다. 냉전 금제의 임계점에 다다른 중국문학 번역장 재편을 통해 새롭게 소개된 작품들은 중국에 대한 국내 각계각층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효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고 이는 양국 문학 소통의 환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번역의 정치성'은 냉전시기 세계문학 수용 연구의 지배담론으로서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특수한 형태로 존재했던 균열과 편차 역시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냉전기 중국문학 수용 사례 연구는 소외된 분야이지만 해방 이후 한국 문학의 발전 과정과 문인의 행보를 유기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앞서 반론 수준에서 그친 한국 작가들의 사회주의 문학 수용과 그 영향 관계는 향후의 과제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2. 단행본

김광주 · 이용규 역, 『魯迅短篇小說集. 第1輯-第2輯』, 서울출판사, 1946.

왕캉닝, 『린위탕과 한국: 냉전기 중국 문화 지식의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 소명출판, 2022.

오복휘 저, 김현철 등 역, 『중국현대문학발전사』, 차이나하우스, 2015.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3. 논문

김미란, 「문화 냉전기 한국 펜과 국제 문화 교류」,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백 철, 「제37차 세계작가회의에 한국 PEN은 어떻게 임할까」, 『시사』 9(5), 내외문제연구소, 1970.

엄진주, 「한국현대문학의 중국현대소설 수용사 연구: 해방이후부터 한중 수교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_____, 「해방 10년, 바진(巴金)의 저작물번역연구」, 『中國學報』 97, 한국중국학회, 2021.

이 남, 「서울국제펜대회의 명암」, 『창작과비평』 62, 창작과비평사, 1988.

이동률, 「중국, 대전환의 20년(1972-1992)」, 『한미일중 100년 II 냉전 해체와 중국의 부상(1970~2023)』(최종현학술원편), 일조각, 2023.

李炳漢, 「작품을 선정하고」, 『세계명단편 100선⑬ 중국어권 II 풍경外』, 삼성미술문화재단, 1987.

이봉범, 「반공주의과 검열 그리고 문화」,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상허학회편), 깊은샘, 2005.

_____,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이상경,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와 번역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5, 외국문학연구소, 2016.

전숙희, 「〈家〉의 출판에 붙여」, 『家』, 청람, 1985.

전인초, 「모순의 생애와 소설」, 『누에도 뽕잎을 먹지 않는다』, 문덕사, 1989.

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潘 婧, 「改革開放以來中國文學海外譯介芻議」, 『跨語言文化研究』, 2019.

胡安江, 「改革開放四十年中國文學"走出去"的成就與反思」, 『中國翻譯』 2018年第6期, 2018.

A Belated Encounter with the Canon of Chinese Literature

- Field of Translation(1980s) and Ba Jin, Mao Dun, Laoshe Novels -

Eom, JinJu*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reorganization of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field in the 1980s. In the study, the background and aspects of the acceptance of work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ree areas: literary circles, publishing, and translation field. The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it targeted the 1980s, which was recognized as a gap in the history of literary exchange, and focused on the need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movement of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fiel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Korean society's interest in China, which ente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new economic logic in 1978 and the new intellectual demand had a direct impact on reorienting the publishing field following the business, literary, and academic field. Faced with a changed paradigm, Korean and Chinese writers interchanged at the International Pen Convention held in Tokyo and Seoul in 1984 and 1988. As a result, new works by authors such as Ba Jin, Mao Dun, and Lao She were transla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field, the newly introduced works were able to fulfill their role as an effective medium that satisfies the intellectual desires of all walks of life in Korea about China. This also has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the restoration of literary

* Sun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Research professor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 Field of Translation(1980s), Translation Literature, PEN International Congress, Ba Jin, Mao Dun, Lao She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20일